

ISSUE BRIEFING

2020. 09. 15
Vol. 230

2020

ISSUE BRIEFING

연구진

조원지_부연구위원 산업경제연구부

사회재난 코로나19,
전북 농촌 노인의 일상 위기를 극복하자!

CONTENTS

- 1. 들어가며 3
- 2. 국내외 사회재난 대응 사례 4
- 3. 전라북도 농촌 노인생활돌봄 추진방향 및 과제 8

요약

- 세계보건기구(WHO)가 지난 3월 11일 ‘팬데믹(pandemic)’으로 선언한 코로나19는 우리 사회가 직면하고 있는 갑작스럽고 삶을 위협하는 사회재난으로, 첫 번째 확진자 발생 이후 9월 3일 기준 20,644명으로 집계됨
- 코로나19에 따른 소득감소, 실업, 사회적 고립감, 가족 돌봄 등의 장기화로 실내 활동, 비대면·비접촉이 일상화되면서 피로감, 불안 등이 사회 전반으로 누적됨
- 코로나19 확진자의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고령층은 코로나19 고위험군으로 분류되고, 행사 취소 및 다중이용시설 폐쇄에 따른 비대면 환경에 대한 고령층의 체감도가 높음
- 고령화된 농촌에서 사회활동과 사회관계망 축소는 노인의 고립감, 외로움, 스트레스를 가중시키고 있어 노인을 위한 심리지원의 필요성이 부각됨
- 초고령 노인, 독거노인의 수가 증가하고 있는 전북 농촌지역에서 코로나19가 노인들의 심리적 안녕감과 삶의 질에 미칠 부정적인 영향에 대한 재난심리지원이 필요함
- 중앙정부 및 일부 지자체는 재난 경험자의 심리안정을 위한 방안을 모색하고 있으나, 주로 온라인을 중심으로 재난에 대한 정보 등을 제공하고 있어, 해외 사례를 통해 온라인에서 오프라인으로 확장하고 장기적으로 지원할 방안 모색이 필요함
- 전북 노인의 정서 안정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농촌 마을공동체 기반 노인생활돌봄체계 구축이 필요함
- 농촌 노인생활돌봄체계 구축을 위해 농촌 노인의 일상 공간 재정립, 구성원의 생활돌봄 주체화, 돌봄 체계 운영·관리를 위한 지역사회의 지원이 필요함

사회재난 코로나 19, 전북 농촌 노인의 일상 위기를 극복하자!

1. 들어가며

- ‘사회재난’은 화재, 붕괴, 폭발, 교통사고, 환경오염 사고, 국가 기반 체계 마비, 감염병 확산, 폭력 등 외상 경험 등에 따른 인위적 재난으로 정의됨
 - 사회재난은 화재·붕괴·폭발·교통사고·화생방사고·환경오염사고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피해와 에너지·통신·교통·금융·의료·수도 등 국가기반체계의 마비,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염병 또는 「가축전염병예방법」에 따른 가축전염병의 확산 등으로 인한 피해¹⁾
- 세계보건기구(WHO)가 3월 11일 “팬데믹(pandemic)”으로 선언한 코로나19(COVID-19)는 우리사회가 직면한 갑작스럽고 삶을 위협하는 사회재난임
 - 팬데믹은 새로운 전염성 질병이 전 세계적으로 동시에 유행하는 상황을 말하며, 경보단계 중 최고 위험등급에 해당됨²⁾
- 우리나라는 첫 번째 코로나19 확진자 발생 이후 9월 3일 기준 누적확진자는 20,644명으로 집계됨
- 지난 6개월 이상 지속되고 있는 사회적 거리두기는 개인의 직장생활, 가정생활, 사회생활, 학업 등 전반적인 일상의 변화를 가져왔으며, 이는 개인과 사회 건강을 위해 일상화가 되고 있음
- 코로나19에 따른 소득감소, 실업, 사회적 고립감, 가족 돌봄, 불확실성 등의 장기화로 실내 활동, 비대면·비접촉 일상화는 사회 전반으로 코로나에 대한 피로감, 불안 등이 누적됨
 - 코로나19로 유발된 우울증, 불안, 무기력증 등 정신건강 악화, 심리적 안정감 감소에 대해 ‘코로나19’와 우울증을 뜻하는 ‘블루(blue)’를 합쳐진 ‘코로나블루’ 신조어가 등장³⁾
- 코로나19 확진자 중 사망자의 절반 이상은 신체 면역력이 낮은 60세 이상으로 WHO는 코로나19로 건강상태가 중증 이상으로 악화될 우려가 있는 고령층을 고위험군으로 분류함 (Landry et al., 2020)
- 노인들의 코로나19 감염 확산 차단과 안전을 위해 고령층을 위한 모임·행사 취소 및 다중이용시설의 임시 폐쇄와 휴관이 집중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어 비대면 환경에 대한 고령층의 체감도는 높을 것으로 여겨짐
 - 고령화된 농촌 노인은 코로나19로 타지에 거주하는 자녀, 지역주민 등과의 접촉이 줄어들면서 농촌 노인의 사회관계망이 축소되며 고립감, 외로움, 스트레스를 호소하고 있음
 - 코로나19 장기화 사태에 따른 노인의 삶의 질 악화와 노인 돌봄은 사회적 이슈로 부각되고 있음

1) 국민재난안전포털, http://www.safekorea.go.kr/idsiSFK/neo/sfk/cs/contents/prevent/SDIJKM5116_LIST.html?menuSeq=127

2) WHO(2010). What is a pandemic? 출처: https://www.who.int/csr/disease/swineflu/frequently_asked_questions/pandemic/en/

3) 출처: 산림청·한국산림복지진흥원. 트렌드용어사전, <https://m.blog.naver.com/k-fowi/221863549691>

- 2018년 기준 전북 농촌인구 527,205명 중 60세 이상 고령층이 39.9%(210,158명)로 전북 농촌은 초고령사회로 진입하고 있어, 코로나19가 전북 농촌 지역의 노인들의 삶에 미치는 영향은 클 것으로 예상됨
- 사회재난 코로나19를 계기로 전북 농촌 노인들봄에 대한 새로운 정책적 고민이 필요한 시기로, 국내외 사회재난 지원 사례를 통해 이를 위한 대책을 마련하고자 함

2. 국내외 사회재난 대응 사례

2-1. COVID19 대응 심리지원 사례

• 행정안전부 심리치료지원

- 행정안전부는 심리회복지원 대상 확대를 위해 「심리적 안정과 사회적응 지원 기준(고시)」 제정하여 8월 4일부터 시행하여 재난 피해 정도와 상관없이 당사자가 재난 심리회복지원센터에 요청하면 전화로 심리상담 및 응급처치를 받을 수 있음

• 서울특별시 COVID19 심리지원단⁴⁾

- 사회재난에 따른 정신·심리적 부작용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시민들의 정신건강과 심리 안정을 위한 지원하고자 3월 4일 'COVID19 심리지원단'을 발족
- 코로나19 현상에 의한 불안과 스트레스를 경험하고 있는 서울 시민들의 심리 방역을 강화하기 위해 온라인 중심으로 '마음돌봄'을 위한 마음처방전, 마음영양제의 이름으로 코로나블루 극복 관련 자료 등을 제공



〈그림 1〉 서울시 COVID19 심리지원단

4) <http://covid19seoulmind.org/>

사회재난 코로나 19, 전북 농촌 노인의 일상 위기를 극복하자!

• 제주특별자치도 사회적 힐링 추진

- 제주도의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는 7월 6일 ‘코로나블루의 사회적 위기 진단과 처방을 위한 전문가 간담회’를 개최하여, 도민의 심리적 회복과 치유를 위한 지원의 필요성을 강조
- 코로나19의 심리적 위기 극복의 일환으로 한국형 뉴딜정책과 연계한 도민과 국민을 위한 제주 관광산업을 활성화 방안 모색의 중요성을 강조

2-2. 국내외 재난 심리지원 사례

• 국립정신건강센터 국가트라우마센터 ‘트라우마 회복패키지’ 프로그램⁵⁾

- 국립정신건강센터 국가트라우마센터는 일상생활, 직업생활의 어려움을 겪는 재난 경험자를 대상으로 심리적 어려움을 평가, 회복프로그램 시행, 관리하는 ‘트라우마 회복패키지’ 프로그램을 운영

• 보건복지부 세월호 여객선 사고 심리상담·지원⁶⁾

- 세월호 참사(2014년 4월 16일) 이후 생존자, 희생자, 사고피해 가족, 지역주민, 구조 관계자 등은 재난으로 인한 심리적 외상을 경험하고 있으나 전문적인 상담을 받은 비율이 낮은 것으로 나타남⁷⁾
- 정부의 초기 대응 부족으로 사고 이후 피해자 및 관련자들에게 필요한 심리 검사 및 상담·치료가 제공되지 않아 이들은 심각한 정신·심리 문제를 경험함
- 현재 보건복지부는 안산과 진도 지역에서 대상자들을 위한 광역정신건강증진센터, 지역 정신건강증진센터, 의료진 파견 등을 통해 정신건강문제 대응 교육, 심리지원서비스를 제공⁸⁾

세월호 사고 희생자 및 유가족에게 깊은 애도를 표합니다.
정부는 세월호 사고 구조자, 실종자 가족, 유가족 및 지역주민 등을 위한 심리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진도 현장에서는 국립나주병원, 국립공주병원, 국립부곡병원 의료진들이 파견되어 심리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안산에서는 안산 온마을 센터에서 실종자 및 희생자 가족, 안산지역 학생, 주민 등을 대상으로 심리지원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전국의 시도 광역 및 기초 정신건강증진센터에서도 일반인 구조자, 실종자 및 희생자 가족, 구조요원 등을 대상으로 심리지원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안산의 학교 교직원들 대상으로도 각 학교에서 정신건강문제 대응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보건복지부 콜센터(129), 정신건강증진센터 대표번호(1577-0199)로 연락하시면, 누구든지 상담 및 심리지원서비스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 가까운 센터 위치 및 연락처는 아래에서 확인

※ 경기, 안산 정신건강증진센터 위치 및 연락처

| | | | | |
|-----|--------------|--|--------------|---|
| 시도 | 경기광역정신건강증진센터 |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수성로 244번길 69(정자동) 경기도의료원2층 | 031-212-0435 | http://www.mentalhealth.or.kr |
| 시군구 | 안산시정신건강증진센터 |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화랑로 387(구보천소1층) | 081-413-1822 | http://www.ansancnrc.or.kr |

〈그림 2〉 세월호 여객선 사고상담·지원

5) <https://nct.go.kr/>

6) <http://mohw.go.kr/issue/sub02.jsp>

7)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2017년 자료에 의하면, 안산트라우마센터(안산온마을센터) 사례관리 대상자 1030명 중 전문 상담을 받은 이는 전체 25.8%인 266명으로 그침(미디어오늘, 2017.10.8.)

8) <http://mohw.go.kr/issue/sub02.jsp>

• 미국 뉴올리언스 ‘플뢰르 드 리스(Fleur-de-lis)’⁹⁾

- 2005년 8월 29일 미국 루이지애나주 뉴올리언스시에서 발생한 허리케인 ‘카트리나’는 2,541명 사망·실종자, 100만 명의 이재민과 함께 뉴올리언스 도심의 80%가 물에 잠기는 피해를 입음
- 10명의 심리상담, 치료 전문가가 ‘플뢰르 드 리스’를 머시(Mercy)가족센터에서 지역 내 어린이, 청소년, 가족들을 대상으로 2005년 카트리나 직후 트라우마 극복 지원 프로젝트를 운영
- 지역 내 심리치료 전문기관, 종교단체, 학교, 지역공동체가 하나가 되어 학교별로 트라우마를 겪는 학생들에게 상담·치료를 지원하고 연방정부와 국립정신건강연구소(NIMH)는 프로젝트를 위한 재정 지원을 하고 있음
- 플뢰르 드 리스 프로젝트를 통해 대형 재난의 피해는 장기적이며, 반드시 심리 안정과 정신건강 증진을 지속적인 지원과 피해자 전담 치료기구 설치의 필요성을 확인



Created in October 2005, **Project Fleur-de-lis™ (PFDL)**, a program of Mercy Family Center, began as an intermediate and long-term school-based mental health service program for youth and families who have been and/or continue to be impacted by trauma. PFDL was initially created in direct response to the overwhelming mental health needs of youth and families in the aftermath of Hurricane Katrina. Over the past 12 years, PFDL has evolved to provide evidence-based treatment to youth, military families, and communities who have been impacted by community violence and interpersonal conflict.

〈그림 3〉 플뢰르 드 리스(Fleur-de-lis) 프로젝트

• 일본 나가노현 화산폭발 대응 심리지원¹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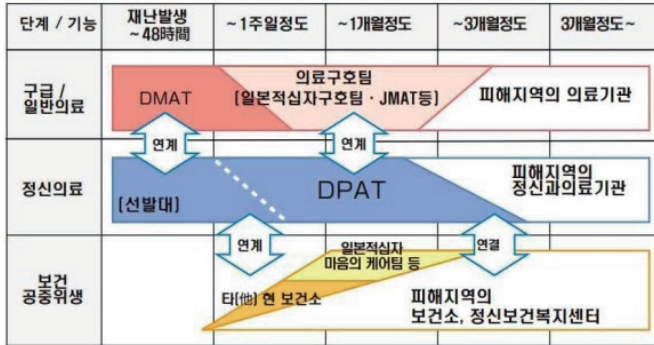
- 2014년 9월 27일 나가노현과 기후현 경계에 위치한 온다케산(Ontake)의 폭발로, 57명의 사망자와 6명 행방불명자가 발생
- 재난 심리지원인 ‘마음의 케어’는 화산 폭발 후 초기부터 나가노현 정신보건복지센터와 연계한 활동이 조직적으로 이루어짐
- 분화 다음날 급성스트레스 반응을 보이는 이들을 대상으로 나가노 현립 마을의 의료센터 재난파견정신의료팀(DPAT)이 대응함 분화 이틀날 마음의 케어 관계기관의 연락 회의를 실시
- 복지센터와 마음의 지원센터가 ‘마음의 케어 팀’ 편성하고 등산자, 유족·행방불명자 가족 등을 위한 ‘재난 피해자 가족 서포트 팀’과 연계하여 지원활동이 진행되며, 행방불명자의 가족, 동료, 친구 등 다양한 배경을 가진 이들을 대상으로 ‘재난 피해자 가족 서포트 팀’이 이들의 신체·심리상태를 평가, 의료기관 및 마음의 케어 팀으로 연계

9) <http://projectfleurdelisnola.org/>

10) 국가트라우마센터(2019). 일본재난심리지원체계 자료집. 국립정신건강센터 국가트라우마센터.

사회재난 코로나 19, 전북 농촌 노인의 일상 위기를 극복하자!

- 분화 지역 주민뿐만 아니라 재난대응 관련 이들에게 이들의 불면증, 피로감, 스트레스 등에 대응한 케어를 장기적으로 지원



〈그림 4〉재난발생 후 재난 정신건강 대응 시기

| | 9月 | | | | 10月 | | | | | | |
|-----------------|-----------------|----|----|----|-----|---|---|---|------|-------|-----|
| | 27 | 28 | 29 | 30 | 1 | 2 | 3 | 4 | 5~11 | 12~16 | 17~ |
| 피해지역 소방 | 구급어음, 수색 등 | | | | | | | | | | |
| 피해지역 경찰 | 방화, 유해화학물질 제거 등 | | | | | | | | | | |
| DMAT | 재난의료 | | | | | | | | | | |
| 피해지역 병원 | 재난의료 | | | | | | | | | | |
| DPAT | 정신의료 | | | | | | | | | | |
| 재난 피해자 가족 서포트 팀 | | | | | | | | | | | |
| 피해지역 보건소 | 방수요, 당근, 식염수 | | | | | | | | | | |
| 나가노현 내 타 보건소 | 대기수 배 | | | | | | | | | | |
| 일본적십자 의료구조팀 | 구조지원, 대피수색 | | | | | | | | | | |
| 마음의 케어 팀 | | | | | | | | | | | |
| 나가노현 정신보건복지센터 | 대기소, 지원케어 | | | | | | | | | | |
| 마음의 의료센터 | 대기소, 지원케어 | | | | | | | | | | |
| 피해지역 의사회 | 유체수색 | | | | | | | | | | |

〈그림 5〉각 조직의 활동상황 (나가노현 분화)

2-3. 시사점

-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사회적 거리두기가 일상화되며, 재난이 개인, 가족, 공동체 등의 정신 건강과 심리적 안녕감에 영향을 미치는 사례들이 증가하면서 재난심리지원의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음
- 중앙정부 및 일부 지자체는 재난 경험자의 심리안정과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고 있으나, 주로 온라인을 중심으로 재난에 대한 물리적·심리적 대처방법, 심리지원 제공 기관 등의 정보를 제공하고 있음
- 미국과 일본 사례를 통해 재난으로 인한 심리적 외상을 완화·극복하는데 재난 경험자에게 장기적이고 체계적인 심리 지원을 직접 제공하고 있어, 현재 국내 재난심리지원을 온라인에서 오프라인으로 확장하여 장기적으로 지원할 방안이 모색되어야 함
- 전염성이 높은 코로나19 대응방안으로 ‘사회적 거리두기’가 추진되면서 사회적 관계와 활동이 위축되고 있으며, 특히 타 연령층에 비해 코로나19에 취약한 고령층은 사회적 거리로 이들의 생활환경은 주로 주거 공간으로 축소되어, 정신 건강 및 심리적 안녕감을 위협할 가능성이 높음
- 초고령 노인, 독거노인의 수가 증가하고 있는 전북 지역 노인 관련 시설·기관 폐쇄, 행사 및 모임 자제 등으로 노인들의 사회적, 심리적 고립은 심각할 것으로 예상됨
- 이에 따라, 이들의 건강과 삶의 질 증진을 위해 온라인이 아닌 일상에서 장기적, 체계적으로 심리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함

3. 전라북도 농촌 노인생활돌봄 추진방향 및 과제

• 농촌 지역사회 기반 노인생활돌봄의 방향

- 코로나19 감염에 취약한 농촌 고령층들의 건강을 위해 공동체 내 노인 관련 시설 폐쇄와 모임 자제 등 예방 차원의 방안들이 추진되면서 농촌 노인의 일상공간은 '지역사회'에서 '집'으로 비자발적인 축소가 진행됨
- 농촌 노인의 일상생활이 이루어지는 공간이 '집'으로 축소되면서 일상에서 발생하는 노인들의 다양한 욕구를 충족하는데 한계가 있음
- 공원, 병원, 마켓 등 생활SOC(기반)이 취약한 농촌 공간에서 생활 속 거리두기는 농촌 거주 노인들의 신체·심리·경제·사회적 위축으로 이들을 위한 일상생활 지원이 요구됨
- 고령층의 삶의 질과 건강은 개인적 자원뿐만 아니라 개인을 둘러싼 환경, 지역 환경의 특성이 중요하며, 지역사회에서 많은 시간을 보내는 노인은 환경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음¹¹⁾
- 노인들은 오랜 시간동안 거주해온 집과 지역사회에 애착을 형성하고 의미를 부여하며 살던 곳에서 나이들기(aging in place)를 원하며(한경혜 외, 2019), 지역사회와 분리된 공간에서 생활할 수 없기 때문에 지역사회와 연결된 노인생활돌봄 정책이 추진되어야 함
- 사회재난에 따른 농촌 노인들을 위한 정책 방향은 노인을 지역사회 내에서 분리하는 고립이 아니라, 지역공동체 내에서 이들의 삶이 유지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함

〈표 1〉 전라북도 농촌 노인생활돌봄 추진 방향

| 사회적 재난 대응 | 현 대응방향 | 전북 대응방향 |
|-----------|------------------|------------------|
| 정보제공 | 온라인 중심 제공 | 온라인과 '오프라인' |
| 거주공간 | 축소 (지역사회 → 집) | 확대 (집 → 지역사회) |

↓

| | |
|----|----------------|
| 목표 | 자생적인 농촌마을돌봄공동체 |
|----|----------------|



〈그림 6〉 전북 농촌 마을공동체 기반 노인생활돌봄

11) 환경노년학(environmental gerontology)은 개인과 환경 간의 상호작용을 통한 노화를 강조함 (한경혜 외, 2019)

사회재난 코로나 19, 전북 농촌 노인의 일상 위기를 극복하자!

- 농촌 마을공동체 기반 노인생활돌봄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세 가지 방향을 제안하고자 함
- 첫째, 농촌 노인의 일상 공간 축소에 따른 노인의 물리적·심리적 위축으로 삶의 질이 저하된다는 점에서 생활 및 심리 지원을 위해 노인들의 '일상생활 공간'과 '돌봄 공간'은 재정립될 필요가 있음
 - 비교적 큰 규모의 공간에서 소규모의 공간으로 재구조화하여 농촌 노인들의 사회관계의 밀도를 높이면 제도적이고 자생적인 생활돌봄 생태계를 구성할 것으로 예상됨
- 둘째, 중앙정부 및 지자체의 농촌 노인의 돌봄은 수직적이고 일괄적으로 제공되어 왔으나, 사회적 거리두기로 야기되는 심리·정서 및 생활돌봄 지원은 공동체 구성원이 돌봄의 '주체화'가 필요함
 - 구성원 간의 상호 돌봄 제공을 통하여 노인의 가변적이고 다양한 욕구를 적극적으로 대응함으로써 농촌 노인의 심리적 안정과 삶의 만족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됨
- 마지막으로, 농촌 마을공동체 기반 노인생활돌봄체계를 체계적으로 유지·관리하기 위해 '지역사회'의 지원이 필요함
 - 농촌 마을을 기반으로 한 돌봄이 원활하게 유지되기 위해서는 제도적인 지원과 관리가 요구되며, 지역사회 자원의 접근성이 용이한 환경 형성을 통해 노인의 삶의 질을 향상 가능함
- 농촌 마을공동체 기반 노인생활돌봄 추진체계 구축
 - 마을공동체 노인생활돌봄 추진체계 구축
 - 노인생활돌봄¹²⁾은 마을공동체단위로, 돌봄 제공 주체는 마을 주민들로 구성하여 노인생활돌봄 추진체계를 구축
 - 읍·면 중심 농촌공동체 내에서 노인생활돌봄 제공 가능한 지역주민을 육성하고 관리할 수 있는 지원체계 구축을 위해 시·군별 노인생활돌봄센터를 설치·운영
 - 각 시·군별 담당부서 내 전담인력을 배치하여 노인생활돌봄센터 운영 및 노인생활돌보미 자격, 협의체 등을 관리
 - 노인생활돌보미 자격교육 및 역량강화 교육, 세미나, DB구축, 모니터링 등을 운영·관리하는 센터는 시·군 내 유사 또는 관련 시설·기관에서 담당
 - 읍·면 단위별 노인생활돌보미 대표를 선정하여 공동체 내 노인생활돌보미 관리, 수혜자와의 연계 등을 수행
 - 품앗이 포인트 은행
 - 복지수혜자가 공급자가 될 때 수혜자의 자존감이 향상되며, 지역주민의 자발적인 돌봄공동체가 형성
 - 주민 간 일상 돌봄과 정서지원을 상호 실천을 품앗이로 하며, 품앗이 포인트를 통해 도움을 제공하거나 받을 수 있음
 - 도움을 제공한 구성원은 품앗이 포인트를 적립하고, 도움이 필요한 구성원은 보유하고 있는 포인트를 수수료로 지불
 - 품앗이 포인트는 일정 횟수 도움을 무상으로 받을 수 있도록 제공되며, 이후 도움의 대가로 수수료를 지불
 - 도움을 제공하기 어려운 노인들을 한에서는 품앗이 포인트를 무상으로 지급

12) 생활돌봄은 돌봄 서비스의 사각지대에 있는 이들에게 지역사회 차원에서 일상생활 돌봄(예: 장보기 대행, 말벗, 이동세탁, 농번기 공동급식 등)임 (황영모, 2019)

• 작은 주방

- 노인을 위한 서비스는 비교적 큰 규모의 노인 관련 시설을 통해 제공되는 경우가 많음.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한 시설 폐쇄는 농촌 노인의 사회적 욕구 등을 충족시키는데 어려움이 있음
- 규모가 큰 시설보다 작은 공간을 통해 노인들이 사회적 관계 유지와 활동을 유지할 수 있도록 작은 주방을 운영
- 1인 또는 2인 노인가구가 다수인 농촌 공동체에서 음식을 함께 조리하고 공유하며, 이웃에게 반찬 나눔을 할 수 있는 소규모의 사회활동 공간 마련을 통한 사회적 욕구를 충족할 가능성이 높음
- 사례: 소규모 노인 여가활동 시설 독일 '시니어사무소(Seniorenbüro)', 프랑스 파리지 '시니어클럽(Clubs seniors) (서울시복지재단, 2014)

• 반려동물 공동돌봄체 운영

- 반려동물은 노인의 외로움 감소, 생활의 활기, 건강향상 등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남
- 반려동물 양육을 위해 지출하는 비용(사료 및 간식비, 병원비, 미용 및 관리용품비 등)이 적지 않아 취약계층에게 경제적 부담이 되는 것으로 나타남
- 노인가구들이 함께 반려동물 돌봄 과정에서 노인들 간의 상호작용과 돌봄 행위를 통해 사회·정서적 만족감이 높아질 것으로 보임
- 희망 노인들을 대상으로 반려견 또는 반려묘를 함께 돌보기 위한 사료 및 간식비 등을 일부 지원하고 동물 의료, 훈련 등을 지원
- 경증장애, 만성질환을 가지고 있는 노인들을 위한 정기적인 건강 체크와 노인들을 위한 여가·문화 교육, 정신건강 상담 서비스 등을 제공

• 이웃 점빵

- 교통시설, 생활편의시설 등 인프라가 부족한 농촌 지역 특성과 거동이 불편한 노인들의 불편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 생활편의시설 접근성이 낮은 마을을 중심으로 마을 단위 장비기와 배달 서비스로, 정기적으로 마을 노인들이 필요로 하는 기초 생필품과 먹거리 목록을 작성하여 노인생활돌보미가 읍·면 나들가게 등에 전달
- 해당 품목들을 마을 공동 공간에 배달해주고, 노인생활돌보미의 교통비 등을 지원

• 스마트한 어르신 만보걷기앱 개발

- 신체활동(운동)은 타 연령층에 비해 고령층의 건강에 다양한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남
- 노인의 생활 근력 향상에 도움이 되고, 가장 시도하기 쉬운 운동인 걷기운동을 활용하여 노인의 신체 및 정서적 건강을 높이는 목표로 함
- 노인의 신체적 활동량 증가를 위해 걷기활동 장려 방안으로 노인들이 활동량에 따른 인센티브를 제공
- 노인들을 위해 개발된 만보앱 또는 만보기를 소지하고 노인들이 거주하는 마을뿐만 아니라 시·군 내 어느 장소에서 걷기활동을 함
- 걸음 수에 포인트를 부과하고 만보마다 지역화폐로 전환 가능

사회재난 코로나 19, 전북 농촌 노인의 일상 위기를 극복하자!

<참고문헌>

산림청·한국산림복지진흥원. 트렌드용어사전, <https://m.blog.naver.com/k-fowi/221863549691>.

세월호 유가족 트라우마 여전 “국가 지원 늘려야”. (미디어오늘, 2017.10.08.)

정은하 외(2014). 서울시 고령친화도시 제2기(2016~20년)실행계획 추진을 위한 해외사례 연구. 서울시복지재단.

‘코로나보다 더 무서운게 외로움’...전염병이 바꾼 농촌마을 풍경(연합뉴스, 2020.03.20.)

한경혜 외(2019). 노년학. 신정.

황영모(2019). 농촌지역 생활돌봄과 청년일자리 정책방안. 이슈브리핑, 209, 전북연구원.

Landry, D. M., Van den Bergh, G., Hjelle, K. M., Jalovic, D., & Tuntland, H. K.(2020). Betrayal or trust? the impact of the COVID-19 global pandemic on older persons. *Journal of Applied Gerontology*, 39(7), 687-689.

WHO(2010). What is a pandemic? https://www.who.int/csr/disease/swineflu/frequently_asked_questions/pandemic/en/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COVID-19), <http://ncov.mohw.go.kr/duBoardList.do>



9 772508 688004
ISSN 2508-688X
www.jthink.kr

ISSUE BRIEFING
2020. 09. 15 Vol. 230


전북연구원

55068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콩쥐팥쥐로 1696 Tel 063-280-7100 Fax 063-286-9206

발행인_김선기

발행처_전북연구원

※ 이슈브리핑에 수록된 내용은 연구진의 견해로서 전라북도 정책과 다를 수 있습니다.

※ 지난 호 이슈브리핑을 홈페이지(www.jthink.kr)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